

한국갤럽, 성인 1천5백명 조사

부모와 떨어져 살고있는 우리나라의 성인남녀 가운데 절반정도가 부모와 교류를 거의 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'부모와 자녀의 교류실태'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지않는다고 응답한 7백14명중(전체의 66%)중 48%가량이 기껏해야 1년에 2~3번 정도 부모를 만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중 16.7%는 전화통화도 1년에 2~3번 이하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
우리의 전통가족관계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

난다는 응답자는 여자(52.0%)가 남자(41.3%)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.

또한 부모에게 전화를 거는 빈도는 '1주일에 한번이상(37.1%)', '1달에 한번이상(36.8%)'이 대부분이었으나 '1년에 몇번(11.3%)', '1년에 한번미만(1.2%)', '전혀 하지않는다'는 응답도 있어 주목할만하다.

특히 1년에 2~3번 이하로 전화한다는 응답자는 고연령층일수록 많아(20대 : 9.3%, 30대 : 14.9%, 40대 : 20.8%, 50대이상 : 34.5%) 나이가 들수록 부모에게 소홀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지난 1년간 부모가 자녀들을 어떤 형태로 도와주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1층고나 조연(84.

새 건강 91.5.18

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

부모와 떨어져 사는 성인, 절반은 교류없어

주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중 어느 한 분이라도 생존해있다는 응답자 1천81명(전체 응답자의 72.1%)에 대해 부모와의 동거여부 질문 결과, '같은 집에 산다'는 응답은 33.9%에 불과했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'이웃집 정도'(4.0%), '한 마을/같은 도시'(15.0%), '같은 동네(1시간 정도)'(22.4%), '4~5시간 정도'(17.1%), '6시간 이상'(7.4%)의 거리에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.

부모를 만나는 횟수에 대해서는 '1년에 2~3번'이 48%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'1달에 한번 이상(29.3%)', '1주일에 한번이상(16.5%)', '1년에 한번미만(6.8%)'의 순이었다.

남녀별로는 부모와 1년에 2~3번 이하로 만

4%)', '일을 도와줌(58.1%)', '금전적 도움(54.6%)', '선물을 줌(52.3%)', '손자를 돌봐 줌(39.8%)'순으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반면에 자녀가 부모를 위해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는 '선물(79.6%)'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 '일을 돕는다(67.5%)', '조언이나 권고(60.2%)', '금전적 도움(59.0%)'의 순이었다.

한편, 선조의 이름을 기억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, 할아버지 이름은 전체국민중 54.4%만이 기억하고 있으며 '증조 할아버지 이름'은 12.7%, '고조 할아버지'는 5.0%로 저조한 기억률을 보여 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.